

## 시편 23 편의 묵상

신학박사 조 덕운

*[시편 23:1-6]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3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4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여러모로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 세기 동안에 세계는 몇건의 큰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거나 피해를 입었고, 2 차 대전 후에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공산주의의 악령에 사로잡혀 그들이 약속한 복된 삶은 커녕 수억명의 사람들이 굶어죽거나 몰살 당하거나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동안 평화로운 세상이 왔나 했는데, 이제 사탄을 추종하는 사악한 무리들이 세계 인구 감소라는 명목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어 고의적으로 퍼뜨림으로써 온 세계를 공포와 혼란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관조하건데,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신 종말의 징조들이 확연히 드러남을 보면서, 이 세상은 바야흐로 종말의 시간표 안에서 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때에 나는 다윗이 쓴 시편 23 편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과 축복을 음미하고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시편의 기초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목자이시라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양을 치는 목자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여덟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고 이런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사울 왕 앞에서 한 말로 입증됩니다.

*[사무엘상 17:34-35]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는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어린양을 움켜 가면, 35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이 용맹한 소년 목자 다윗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낸 경험을 사울 왕 앞에서 말한 것입니다. 이 소년 목자는 사자와 곰을 두려워 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쳐서 죽이고 그 입에서 양들을 건져 내어 지킨 것입니다. 자신의 목자 경험에 비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어린 양과 같은 자신을 사자와 곰 같은 사악한 원수들로부터 지켜내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며, 그들이 아프거나 병들면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굳게 믿는 신앙이 바로 이 시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구절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심을 노래합니다.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참된 목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모르고 방황하며 사악한 무리들의 준동에 죽고 병들고 고통스런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분은 오늘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0:11-12]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12 목자가 아닌 삯꾼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다음 구절은 목자의 승리의 결과로 양 떼가 누리는 평안하고 복된 상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2 절.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목자가 싸워서 사자와 곰과 늑대들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양들이 초장에서 평안하게 풀을 먹고 물가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참된 목자되신 주님께서 종말에 원수의 무리를 모두 멸살함으로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우실 천년 왕국에는 전쟁도 없고, 온 세상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19-21]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20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 21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동안 참으로 어려운 경험들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의 본고장인 가드에 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추종자 수백명의 보호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을 믿지 않는 아기스의 수하들을 두려워 하여 다윗은 미친 사람 행세를 하여야 했습니다. 이 경험은 다윗에게 큰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3 절.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데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저지른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모두 고함으로써 용서받고 우리의 영혼이 주의 진리 안에 회복된 상태로 바로 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4 절.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시절에 유대 광야의 암벽 골짜기에 숨어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평야 지대와 사해의 중간에 위치한 이 광야는 대언자 엘리야가 사악한 이세벨 왕비의 추적을 피하여 이곳으로 가서 숨어 지냈던 곳이기도 하며 (열왕기하 19:4), 침례자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한 곳이었으며 (누가 3:2-4), 또한 주 예수님께서 40 일간 지내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마태 4:1). 이곳에는 깊이가 1,000 피트가 넘는 매우 깊고 좁은 암벽 골짜기들이 있어서 숨은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짜기들을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망의 컴컴한 골짜기의 미로에서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동안에 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원수의 위협에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다윗을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목자로서 다윗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자신의 양떼를 지켰던 것을 생각하고, 이제 자신이 당하기 힘든 원수의 추적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권능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자신의 목숨을 지켜 훗날의 영광을 위해 보존하셨던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5-6 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러한 어려운 세월을 지낸 후에 나이 30 세가 되어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는 헤브론에서 10 년간 나라를 다스린 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 수립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 블레셋 군대와 싸워 대 승리를 거두게 되니, 하나님께서 대언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에게 그의 장래를 말씀하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에 감격한 다윗은 이와 같이 노래합니다.

*[사무엘하 7:18-20] 이에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니이까? 내 집이 무엇이기며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19 그러나,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눈앞에 오히려 작은 일이었으며 주께서는 앞으로 오랜 시간 뒤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일을 또한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이 사람의 방식이니이까? 20 주 곧 {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아시오매 다윗이 주께 더 무엇을 말할 수 있으리이까?*

이렇게 노래할 때에 다윗의 마음 속에는 과거에 겪었던 고난과 수치와 죽음의 골짜기 경험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관데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까?”라고 겸손과 감사와 감격의 심정을 실토하였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여러 험난한 경험,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을 했다면, 이제 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축복의 미래를 보고 감격하여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www.douglaschoministry.net](http://www.douglaschoministry.net)

후원: 그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Douglas Cho Ministry

P.O. Box 501, Cross Junction, VA 22625-0501

Or use Paypal to send support to [dwcho4771@gmail.com](mailto:dwcho4771@gmail.com)

한국: 신한은행 송금 계좌 110-008-655930 [예금주 조덕운]